

### 3. 석재외장 공사 일용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50세	직종	건설업	업무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**1. 개요:** 근로자 조○○은 1972년부터 석공으로 화강암, 대리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2005년 12월 J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.

**2. 작업내용 및 환경:** 조○○은 16세 때인 1972년부터 ○○건설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2005년 12월까지 약 30년간 석공으로 일하였다. 주택 건설 시에는 원석을 들여와 가공하여 계단 등 석재를 만들었고 벽체에도 화강암 외장 설치를 하였다. 계단을 만드는 작업은 정과 망치,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고 한다. 석재를 자르는 작업, 벽면에 앵글설치 작업, 석재에 핀 삽입용 구멍을 뚫는 작업, 앵글에 걸기 위해 석재에 홈을 내는 작업 등 작업에서 분진에 노출되었으며, 작업공정상 물을 몰일 수가 없어 돌가루 먼지가 많이 날아다녔다고 한다. 작업시간은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을 하였다고 한다. 1987-2004년 까지는 화강암, 대리석을 반반 정도로 작업했다고 하며 작업 내용은 동일하였다. 작업 시 방진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편이었으나 작업 후 코에 이물질이 많이 끼었다고 하며,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것도 1990년대 후반부터였고 그 이전에는 방진마스크가 없어 일반 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했다고 한다.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없었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조○○은 특별한 과거력과 암의 가족력이 없었다.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1-2주에 소주 1병정도 마셨다고 한다. 2001년, 2003년에 받은 건강진단은 정상이었다고 한다. 2005년 12월 양치질 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후 증상이 계속되어 2005년 12월 J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폐 선암(T2N0M0)이 확진되었다. 기관지내시경에서는 탄분증(anthracosis) 소견이 있었다. 폐암 진단 후 치료를 위해 A대학병원을 방문 2006년 1월 폐절제술을 받았다. 수술한 폐의 조직검사에서는 섬유성결절, 탄분증에 의한 섬유화 소견을 보여 진폐증이 있음을 시사하였다. 연구원이 S대학병원에 의뢰한 수술전 흉부방사선사진(2005.12.촬영) 판독에서는 진폐증 1형(1/0) 판독이 나왔다.

#### 4. 결론: 근로자 조○○은

- ① 약 30년간의 석공 작업으로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인정되고,
- ② 진폐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,
- ③ 유리규산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,
- ④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암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,

근로자 조○○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